

성명	남호근	수험기간	2023.11~2025.07.
학교	연세대학교	전공	전기전자공학부
키워드	생동차 군대 병행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 62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남호근입니다. 학업, 직장, 군대 등 각자의 상황에서 변리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제 수기를 통해 공부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1차 공부

24년도 1차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5점	27.5점	60점

25년도 1차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2.5점	85점	65점

### **-민법-** <점수: 92.5점>

#### **【강의 및 교재】**

교재: 김동진 민법공방, 김동진 민법공방연습

강의: 김동진 민법 기본강의, 김동진 25년 시험 대비 민법 최신판례강의

#### **【시기별 공부】**

23.11~23.12	24.1~24.2	24.4~24.7	24.9~24.12	25.1~25.2
민법 기본강의 수강	민법공방연습 1회 풀이 후 오답	민법공방 회독	민법공방 회독, 민법공방 연습 1회풀이 후 오답	민법공방 연습 1회풀이 후 오답, 최근 5개년 기출 문제 풀이, 오답 문제 풀이

23년도 11월에 군대에서 김동진 선생님의 민법 기본강의 수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말까지 기본강의를 완강하고 민법공방연습을 1회 풀었습니다. 민법공방연습을 풀 때는 한번에 100문제 정도를 노트에 풀고 스스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틀린 문제는 해설을 읽고 민법공방연습 워크북에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1권의 풀이가 끝난 후에는 워크북에 표시가 된 문제만 다시 풀었고, 또 틀린 문제는 그 위에 두 번 틀렸다는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엔 두 번 틀린 문제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24년도 시험장에는 오답풀이를 2번 진행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고, 3번 틀린 문제의 내용은 따로 노트에 정리해 시험 직전까지 보았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첫번째 응시한 시험에서 95점의 준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본강의의 내용이 머리에 잔존', '확실한 오답 공부방법' 두 가지가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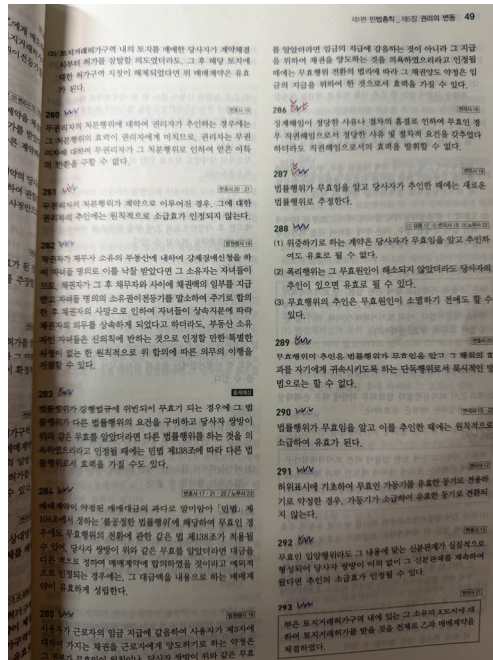


그림 1 - 틀린 문항은 워크북에 빨간 볼펜으로 표시하였다.

민사소송법을 수강했던 24년도 4월~7월 중순의 기간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기본서 회독을 하여 민법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1차 준비를 위해 민법공방연습 풀이를 다시 시작했으며, 풀이와 오답방법은 상기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이때는 산재법 기본강의를 수강하던 기간이라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갔습니다.

이후 산재법 강의가 끝난 12월부터 다시 민법의 비중을 많이 올려 회독과 문제풀이를 병행했으며, 이유럽 최신판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최신판례강의의 내용이 이듬해 시험에서 2~3개 가량 나온 것으로 기억하므로 저처럼 그 전년도에 기본강의를 수강한 사람은 최신판례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법공방연습 총 3회 풀이가 끝난 후, 25년도 1월에는 워크북에 한번이라도 틀려서 표시된 문제를 전부 풀었고, 실제 소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5개년 민법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워크북에 표시된 문제를 푼 것 중에서 두 번 틀린 것들을 정리한 노트'와 '최신 판례 강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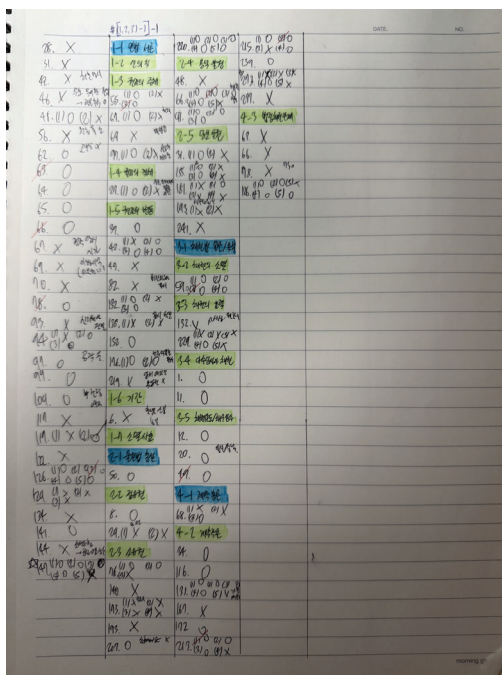


그림 2 - 3회의 풀이동한 한번이라도 틀린 문항을 다시 풀어 그 중에서 한번 더 틀린 것을 시험 직전 주에 풀었다. 한번 더 틀린 것은 노트에 따로 정리하였다.

### 【회독 방법】

회독 횟수가 늘어날수록 페이지를 읽을 때 내용이 기억난다면 빠르게 넘기는 방식으로 읽어 속도를 올렸습니다. 빨리 읽으면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오히려 유리하여 실력이 상승한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기본서는 '전체 구조'를 알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깊은 기본서의 이해가 아닌 문제집 풀이를 통해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 **-산업재산권법-** <점수: 85점>

#### 【강의 및 교재】

교재 : 박형준 조판기, 타학원 상표법 기본서, 김웅 WK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 타학원 특허법 연도별 기출문제풀이집  
타학원 상표법 연도별 기출문제풀이집

강의 : 박형준 특허법 기본강의+, 타강사 상표법 기본강의, 김웅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 【시기별 공부】

24.7	24.9	24.10~24.11	24.12~25.2
7월 중순부터 특허법 기본강의 1/3 수강	특허법 기본강의 완강	특허법 회독, 상표법 기본강의 완강, 상표법 회독,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완강	기본서 회독, 연도별 기출문제풀이

#### 【특허법】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7월 중순에 수강 시작하여 8월은 수강을 중지해두고 9월 한달동안 완강하였습니다. 이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강의를 수강하는 10월~11월의 기간동안 기본서를 2회독하였습니다. 민법에 비해서 이해가 어려운 파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 발체독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연도별 기출문제와 풀이가 정리된 문제집을 통해 최근 12개년의 기출문제를 시험까지 3회 풀어보았습니다. 풀이는 시간을 재며 한회차를 풀고, 해설을 보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기본서 발체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한 사이클을 돌린 후 스스로 개념서 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회독을 진행하여 총 시험전까지 기본서 5회독하였습니다.

#### 【상표법】

타강사님의 기본강의를 10월에 수강한 후 디자인 보호법을 수강하는 기간동안 기본서를 1회독하였습니다. 이후 특허법과 연도를 맞추어 최근 12개년의 기출문제를 시험까지 3회 풀었습니다. 기출문제 한 사이클을 돌린 후 스스로 개념서 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회독을 진행하여 총 시험전까지 기본서 3회독하였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10~11월에 수강한 후 변리사님이 배포하신 진도별 기출문제풀이자료를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풀었습니다. 특정 파트의 오답률이 높아지거나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있다면 발체독하였고, 1월에 기본서 전체 회독을 1회 하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65점>

**【강의 및 교재】**

교재 : 타학원 변리사 자연과학개론, 타학원 생물 요약 개념서

**【자연과학 베이스】**

공부를 시작할 때 기준으로 물리는 80%정도, 지구과학과 화학은 40%정도, 생물은 20%정도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자연과학은 스스로 이해할 자신이 있어 기출문제를 풀고 모르는 내용은 검색 /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찾아본 후 노트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시기별 공부】**

23.11~24.2	24.6~24.7	24.9~24.10	24.11~25.2
기출문제 12개년 풀이 후 정리 및 독학, 기출문제 12개년 복습	생물 개념서 2회독	정리 노트 보강 및 회독	기출문제 12개년 풀이, 정리 노트 회독

**【물리】**

베이스가 있는 과목이라 기출문제 풀이 후 필수 공식을 노트에 정리해두고 읽었습니다. 내용이 헛갈렸던 열역학 파트는 1학년때 사용한 공학물리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화학】**

개념에 대한 베이스는 어느정도 있다고 느꼈고 기출문제들도 이해가 되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던 과목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자면 화학의 경우 유형별 문제풀이 능력이 특히 중요한데, 기출문제만을 반복하여 문제풀이 경험이 적었던 것이 패착입니다. 변리사 화학 대비용 문제집이나 MEET/DEET/PEET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물】**

베이스가 가장 없던 과목으로 기출문제 독학만으로는 내용을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을 24년도 1차 응시를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개념서를 구매하여 민사소송법 사례강의를 듣는 동안 하루 30분~1시간 정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개념서의 내용을 노트에 보강한 후 다른 과목과 같이 기출문제를 반복 풀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지구과학】**

베이스가 어느정도 있었고 내용이 가장 적은편이라 독학의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 풀이하였습니다.

## -기타-

### 【시간 관리】

23년 11월부터 24년 9월까지 군대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개인정비 시간이 많이 보장되었지만,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진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별 공부 시간 목표보다는 월 100시간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훈련 참여로 공부를 하지 못했던 3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월 100시간~월 120시간의 공부를 했습니다. 10월 전역후 이듬해 1차 시험까지 일주일에 1회 휴식, 하루 6시간~7시간 공부의 루틴을 꾸준히 따랐습니다.

### 【체력 관리】

군대에서는 동료 군인과 헬스장에 가고 운동장 러닝을 하였습니다. 전역 후 3개월은 아침수영을 수강하고 집에서 맨몸운동을 했습니다. 25년 1월부터는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기간동안 항상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날로 하여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큰 번아웃이 온 경험이 없는 이유가 정기적인 휴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풀이 방법】

저는 민법을 제외하고는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만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시험의 성향이나 난이도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각 과목별로 연도별 기출을 실제 시험장에서의 해당 과목 목표 시간안에 푸는 것을 자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채점 후 틀린 문제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50.66점	49.66점	58.66점	53.33점

## -민사소송법-

<점수: 50.66점>

### 【강의 및 교재】

#### ▪ 강의

2024년 : 이창한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이창한 민사소송법 사례강의

#### ▪ 교재

이창한 기출문제핸드북 (주교재), 이창한 통합 민사소송법 (부교재), 이창한 사례 민사소송법 (부교재)

###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이창한 24년 기초GS	이창한 실전A 온침 (대면스터디)	이창한 실전B 실강

### [시기별 공부]

#### ▪ 1차 수험 기간

동차합격을 목표로 민법 공부 이후 산업재산권법 수강이 아닌 민사소송법을 수강하였습니다. 참고한 합격수기 (제 56회 합격자 유창준님 법률저널 수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셨다는 내용을 보아 똑같은 방법대로 기본과 사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수강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24년 4월~24년 7월중순까지 3개월 반이었습니다.

#### ▪ 동차 기간

24년 7월 이후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지 못한 탓에 기억이 많이 휘발되어 막막한 느낌이었지만 다시 강의를 다 수강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느껴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통합과 사례를 진도를 맞추어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공부했습니다. 통합은 읽다보니 기억이 조금씩 나서 작년 기본강의 수강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고, 사례 내용은 작년에 수강한 내용이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아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달정도에 걸쳐 통합, 사례 1회독을 마친 후 공부 방향성에 대해 스스로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통합은 부분부분 중요한 내용은 기억났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체적인 조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사례는 아직 스스로 한 문제도 제대로 풀이를 고민할 수 없는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4개월의 기간동안 이 두 권의 책을 모두 소화할 자신이 없었고 그러던 차에 학원에서 기출문제핸드북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풀이 능력을 어느정도 완성하고 동차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한편의 책을 반복 회독할 수 있다면 기본서보다는 사례집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출문제핸드북은 사례 민사소송법보다 컴팩트하고, 실제 기출의 문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교재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출문제핸드북만을 계속해서 회독했습니다.

기본, 사례 강의를 1차 기간동안 수강하여 통상의 동차보다 3주가량 시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5월 기초, 6월 실전B를 수강하는 동차 커리큘름을 앞당겨 4월에 24년도 기초를 수강하고, 5월에 실전A를 온라인 첨삭으로 수강하였으며, 6월에 실전B를 수강했습니다. 5월에 실전A를 들 때는 강제성 부여를 위해 동일한 강의를 수강하는 분과 함께 대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GS성적은 실전A는 상위 80%를, 실전B는 상위 50%를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차니까 그런 것이라고 나름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며 GS복습과 기출문제핸드북 회독을 꾸준히 했습니다.

### [회독 방법]

기출문제핸드북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독하였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기본서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며 정독하였고, 이후 회독 시에는 목차에 중점을 두어 목차 준위별로 형광펜을 그으며 읽었습니다. 어느정도 실력이 생긴 후엔 문제만 읽고 목차와 내용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뒤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총 2.5회분의 GS를 복습하며 기출문제핸드북과 유사한 문제의 경우 해당 페이지와 목차 페이지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GS 출제된 내용중에 지엽적인 내용이 아닌데 기출문제핸드북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책의 빈 공간에 간략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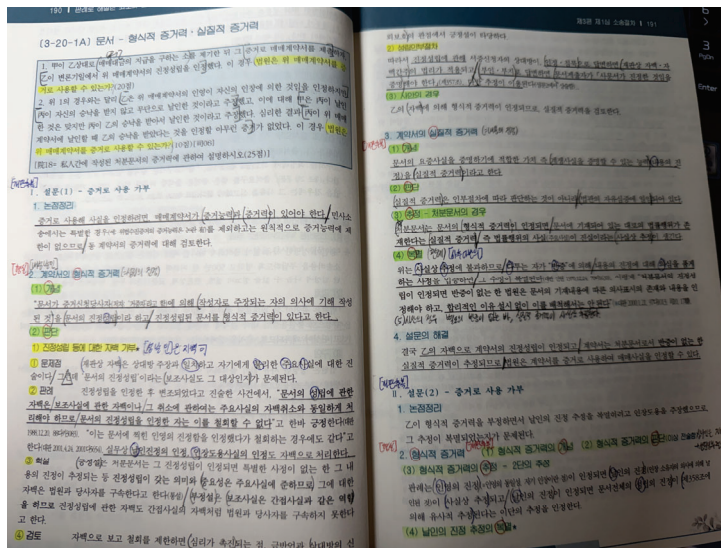


그림 3 - 준위별 형광펜, 목차 두문자가 메모된 핸드북

### 【암기 방법】

이창한 선생님의 두문자가 적혀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였고, 기출문제핸드북을 회독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면 혼자만의 두문자를 따서 표시해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도움이 됐던 것은 목차+내용, 목차 두문자인데, 목차와 내용을 혼합하여 두문자를 따거나 자주 나오는 목차의 두문자를 따두면 실제 문제 풀이시에 좀 더 고민을 덜하고 써내려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암기 스테디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특허법-** <점수: 49.66점>

####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기초GS+, 실전B
- 교재  
총알 (주교재), 준특허법 mini (부교재)

#### 【수강한 GS】

25년 2~4월	25년 6월		
박형준 기초GS+	박형준 실전B		

#### 【시기별 공부】

기초GS+를 수강하며 2차 시험용 특허법 내용을 배우고 준특허법 mini에 수업 중 강조하신 내용을 필기하였습니다. 수업이 후 평일에는 GS를 복습하고, 수업내용을 필기한 준특허법 mini를 다시 읽어보며 복습했으며 중요한 내용은 총알을 제본한 자료에 옮겨 적었습니다. 6월 실전B를 수강할 때에도 GS 복습하면서 총알에 없었던 내용은 총알에 옮겨 적었습니다. 총알을 주교재로 삼아 계속해서 총알을 반복회독 하였으며, 7월에는 여태 수강한 GS 자료 복습을 병행하였습니다.

#### 【회독 방법】

회독 교재는 총알을 제본한 자료였습니다. 기초GS+수업중 강조하신 내용을 옮겨 적고, GS에서 나온 내용중 없는 내용도 옮겨 적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로 특정 트리거에 대해 작성할 내용의 페이지 상단에 트리거를 적어 회독시에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뉘앙스로 나오고 내가 뭘 써야 하는지 한번 더 고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총알 제본 자료는 교재의 1/4~1/5 정도 되는 분량인 만큼 회독 횟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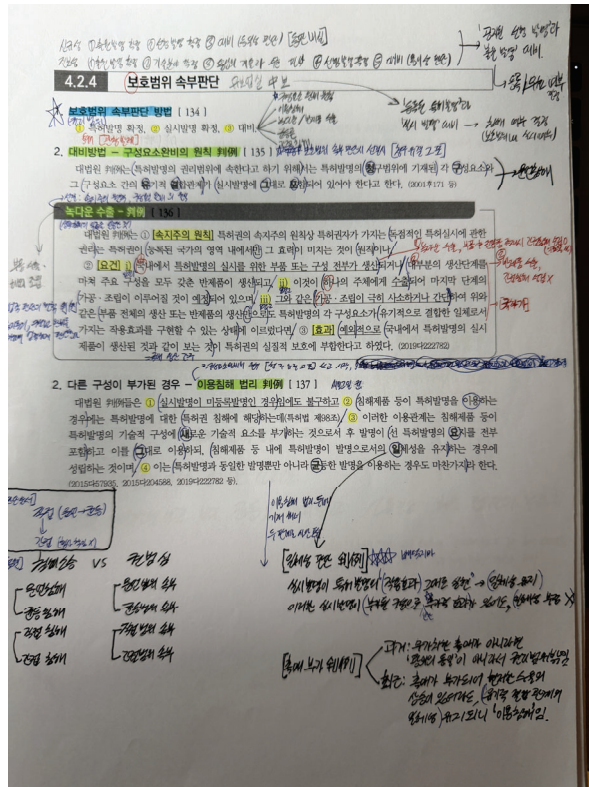


그림 4 - 총알 제본 자료. 트리거와 연관개념이 메모됨.

### 【암기 방법】

총알의 내용은 거의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키워드 암기와 두문자 암기를 둘다 사용했습니다.

### 상표법- <점수: 58.66점>

#### 【강의 및 교재】

- 강의
 

한경훈 기초 GS+, 실전B, 최신판례강의

- 교재
 

암기장 (주교재), 점 (부교재), 선 (부교재), 피날레 (부교재)

#### 【수강한 GS】

25년 2~4월	25년 5월	25년 6월
한경훈 기초GS+	한경훈 실전B	한경훈 최신판례강의

### 【시기별 공부】

기초GS+를 수강하며 2차 시험용 상표법 내용을 배우고 점 교재에 수업 중 강조하신 내용을 필기하였습니다. 수업이후 평일에는 GS를 복습하고, 수업내용을 필기한 책을 다시 읽어보며 복습했으며 중요한 내용은 첫 수업 시간에 나눠주신 암기장을 제본한 자료에 옮겨 적었습니다. 5월 실전B를 수강하고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로직이 떠오르면 해당 파트의 암기장 여백에 메모해두었습니다. 6월에는 최신판례특강을 수강하며 암기장 회독과 GS 자료 복습을 병행했습니다. 7월에는 암기장 회독과 GS 자료 복습, 피날레 2회독을 하였습니다.

### 【회독 방법】

회독 교재는 암기장을 제본한 자료였습니다. 기초GS+ 수업중 강조하신 내용을 옮겨 적고, GS에서 나온 내용 중 없는 내용도 옮겨 적었습니다. 추가로 문제 풀이시에 효율적인 로직이 있다면 암기장의 여백에 메모해두어 회독시마다 한번 더 고민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암기장의 판례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판례는 15% 정도인 만큼, 중요 판례들은 형광펜으로 색칠해 전범위의 중요 판례를 1시간내로 회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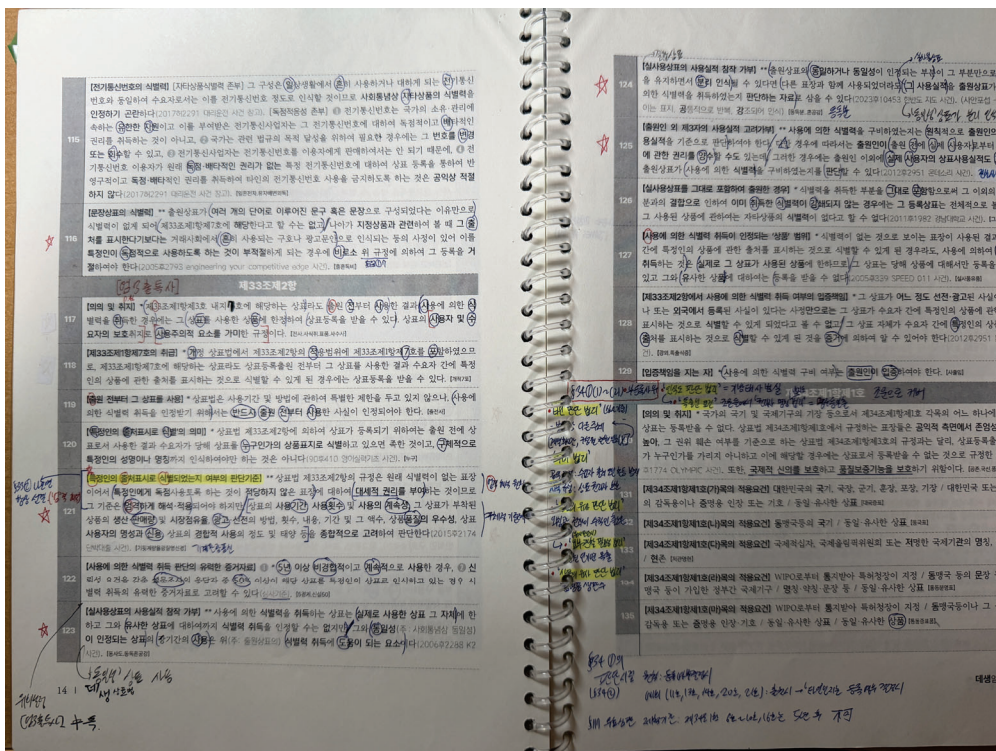


그림 5 - 암기장 제본 자료. 주요판례는 형광펜 표시. 목차 두문자와 문제 풀이 로직이 메모됨.

### 【암기 방법】

간접사실을 나열한 판단기준 판례나 자주 사용되는 판례의 경우 두문자를 이용해 전부 암기하였고, 다른 판례들은 키워드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의식해서 한번에 외우려고 하지는 않았고 암기장을 반복 회독하며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53.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타강사 실전GS

▪ 교재

타학원 디자인보호법 수험서

**【수강한 GS】**

25년 5월				
타강사 실전				

**【시기별 공부】**

4월에 하루 20~30분정도 디자인보호법 기본서를 빠르게 읽어보아 2회독하였습니다. 5월에 실전GS를 수강하며 기본서를 보고 답지를 채웠고, 평일에는 GS 복습을 하였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이틀에 한번 30분 정도 강사님이 배포하신 암기자료 와 GS를 복습하며 공부했습니다.

**【회독 방법】**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법과목과 다르게 높은 수준의 암기를 목표로 두고 회독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회독수가 적습니다. 대신 회독시에 주소 설정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으며 조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 조문의 위치를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암기 방법】**

정말 중요한 판례 대어셋개 정도를 두문자로 외우고 나머지는 키워드 한개나 뉘앙스를 기억했습니다. 특허와 공유하는 판례가 많아 답안 작성시에 판례 암기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0페이지	약 15~20자	목차 사이에 엔터O	가로로 긴 글자체
특허법	22페이지			
상표법	20페이지			
선택과목	16페이지			

### **【글씨 노하우】**

저는 글씨를 정말 못 씁니다. 월비스 가독성 점수 3~4점을 벗어난 적이 없어 글씨 때문에 큰 감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글씨체 개선에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글씨체를 제외한 가독성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목차만으로 문제를 이해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고, 이를 위해 목차에 사실관계를 포함하되 명료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항상 사안 / 결론을 분리 기재하여 '결론' 목차에는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한 명확하고 짧은 답을 기재하여 목차와 결론의 내용만 보고도 문제를 어떤 과정으로 풀었고 도출된 결론이 원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사용한 펜】**

제트스트림 0.7 펜대+엔젤그립에 에너겔 0.7 심을 사용했습니다.

### **【답안작성 방법】**

상대적으로 빈약한 암기량으로 학설-판례-검토의 내용이 부족한 만큼 사안포섭에서 강점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보통 상표법이 사안포섭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특허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앞서 작성한 법리를 제시된 사실관계에 녹여서 '사안' 목차를 풍부하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GS채점 성적보다 실제 시험 성적이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GS채점의 경우에는 특성상 사안포섭에 큰 배점이 없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일반론을 옮겨 적은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다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유효했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타-**

### **【공부 시간 관리】**

2월~6월에는 일 6시간~7시간의 공부를 하였고 7월에는 일 8시간의 공부를 했습니다. 주기적인 휴식 날짜를 제외하고 공부하는 날에 쉰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던 하루 빼고 없었습니다.

### **【시험 시간 관리】**

저는 기초GS를 처음 수강할 때부터 무조건 시간을 지켜서 제출했습니다. 답안을 전부 못 채웠더라도, 실제 시험 대비를 위해 시간을 지키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전 GS에 들어가고부터는 문항별 시간에도 신경을 썼는데, 1번 문항에서 40분을 넘기지 않게, 1,2번 문항에서 1시간 2분을 넘기지 않게 스스로 리미트를 정해두었습니다. 이런 식의 시간 엄수 반복 훈련이 이번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표법 1번 문항에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와 법전을 찾아보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관성대로 어떻게든 40분내로 끝내버려 1번의 악영향이 뒷문항에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 **【체력/멘탈 관리】**

운동을 꾸준히 했던 1차 기간에 비해 2차 기간에는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체력적으로 문제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멘탈 관리의 경우에는 2~5월의 기간에는 별로 힘들었던 적이 없었지만 6월 들어서 특허 실전B와 민소 실전B를 수강하며 동차합격 가능성에 대해 회의감이 들 때마다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양을 줄인 공부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결국 이게 올해 나의 최선인만큼 후회만 안남도록 꾸준히 하자는 생각으로 떨쳐냈습니다.

### **【공부 장소】**

전역 후 1차 3개월 가량은 도서관에서, 나머지 1차 기간과 2차 기간은 집 앞 스터디 카페에서 했습니다. 도서관은 수영 수업을 근처에서 들을 수 있고 오픈된 공부 공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스터디 카페는 더 조용하고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 **【스터디】**

출석과 공부시간 스터디, 5월 민소A 온침 대면 답안 작성 스터디를 했습니다. 출석 스터디는 페널티는 따로 없었지만 존재만으로 오전 9시까지 책상앞에 앉아 있게 하는 강제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는 5월 답안 작성 스터디로, 당시 민소 실력이 형편없어 혼자서 수강했다면 2시간동안 소설 쓰는 것이 싫어서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스터디를 통해 답안을 억지로라도 구성해보며 답안지 작성 실력과 민소 문제 해결능력이 꽤 늘 수 있었습니다.

### **【휴식】**

시험 2주전을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 GS 수강 후 저녁, 월요일을 쉬었습니다. 정기적인 휴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이 시험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윌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민사소송법의 경우 이창한 선생님의 ‘핸드북 진도별 민소법 기출문제’ 교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소가 너무나도 소화가 어려웠지만 이 책을 반복 회독했기에 결국 민사소송법의 벽을 조금이나마 넘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초GS+’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차, 2차 모두 시험을 보는 특허법이지만 두 시험에 필요한 지식은 다릅니다. 기초GS+ 수업에서 진행하시는 개념 강의를 통해 2차를 위한 특허법의 개념을 새로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한경훈 변리사님의 ‘기초GS+’강의와 ‘피날레’ 교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은 기초GS+ 수업 중 답안지학 전반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서 이를 통해 2차 법학 논술 답안지의 구조에 대해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에 대한 내용도 논리에 빈틈이 없는 특유의 설명 스타일이 정말 잘 맞아 상표법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피날레 교재의 경우 주 회독교재는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실력이 올라온 시점에 읽는다면 빠른 시간내에 모호한 개념의 주소 설정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7월에 피날레 교재를 2회 회독하였습니다.

### **【2차 상표법 과목의 고득점 비결】**

객관적으로 고득점자는 아니지만, 1번 문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한번도 보지 않아 1번 문항 저득점을 하고 문항별 배점 3번 문제 65점, 4번 문제 42점으로 고득점하여 상표법 점수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3법 모두 사안포섭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상표법은 절대적으로 사안포섭이 고득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득점을 한 문항 전부 사안포섭 하나는 열심히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과목과 다르게 상표법은 사안포섭 하나만을 작성하고 쓰길 원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상표법의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하시고, 특히 문제 출제 의도가 오직 사안포섭으로 보이는 경우 평소 읽는 판례의 뉘앙스를 생각해보시면서 많이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마치며

저는 꼼꼼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공부에 집중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참고하실만한 뚜렷한 루틴을 제안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움이 앞섭니다. 저의 경험은 전체적인 공부 방향성을 잡으시거나 1차 병행을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부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면, 저는 합격 수기들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대단한 공부 비법을 찾기보다는, 갓 합격한 합격자들의 고무된 어투에 저도 덩달아 합격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 말미에는 언제나 감사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항상 제가 합격한 후 감사를 전하는 그 날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우리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썽쟁이 동생을 항상 응원해준 큰누나, 작은누나, 늘 내 편이 되어준 미진이, 그리고 ‘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준 대박 친구들과 일렉텐 친구들 전부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